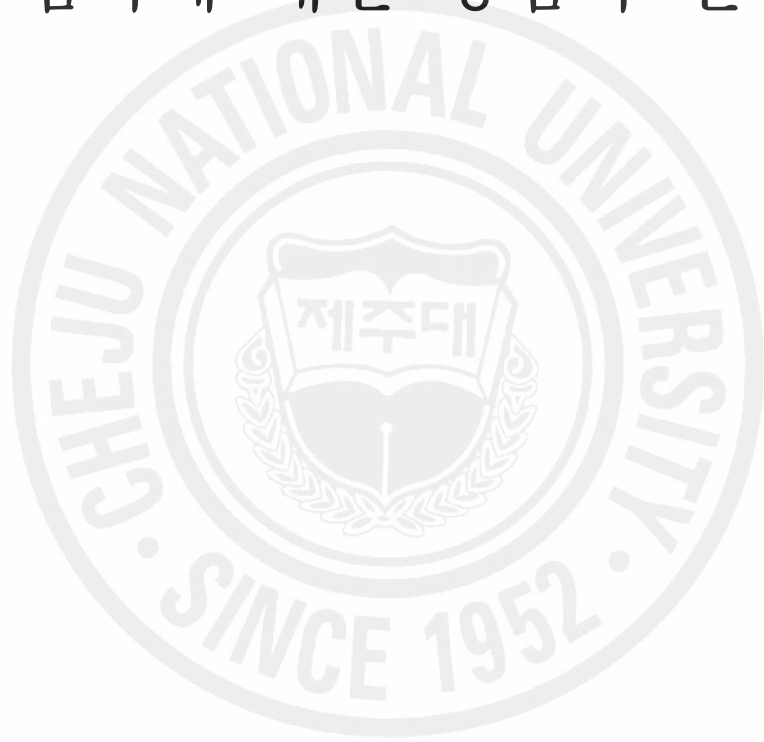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창우

2008년 2월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

지도교수 조성윤

문창우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문창우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년 2월

The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Fortunetelling in the Catholic Church
in Jeju

Chang-Woo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cember, 2007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문제인식 및 연구목적	1
II. 이론적 배경	3
1. 제도종교와 민간신앙(점복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	3
2. 점복(행위)에 대한 개념	4
III. 연구방법	7
1. 조사 대상	7
2. 자료수집	12
3. 분석 방법	14
1) 변수의 타당성 검증	14
2) 변수의 신뢰도 검증	18
IV. 분석 결과	20
1.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 경험	20
2.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에 대한 인식	24
3. 변량분석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29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29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점복차이 검증	32
3) 신앙적 특성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5
4) 교회생활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41
V. 종합 해석	44
VI. 요약 및 결론	49
참고문헌	53
제주 천주교인의 점복에 대한 인식 진단을 위한 설문지	59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적 특성	8
<표 2>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8
<표 3> 조사대상자의 신앙적 특성	10
<표 4> 연구대상자의 교회생활정도	11
<표 5> 제주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에 대한 의식 설문지 참여 분당 분포	13
<표 6> 요인 군집량	15
<표 7> 요인의 추출	16
<표 8> 구성요소별 회전된 요인 Matrix(a)	17
<표 9> 점복 행위 신뢰도 검증	18
<표 10> 점복신앙의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20
<표 11> 천주교 신자의 점복 경험 유형	21
<표 12> 천주교인 전·후에 따른 점복 경험	23
<표 13> 왜 점을 쳤는가	25
<표 14> 점복행위를 하고 나서 갈등이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25
<표 15> 사주팔자대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25
<표 16> 점복 유형별로 본 인식	26
<표 17> 성별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0
<표 18> 연령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1
<표 19> 결혼 상태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2
<표 20> 직업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3
<표 21> 월 소득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4
<표 22> 학력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5
<표 23> 교회소속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6
<표 24> 교회직분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7
<표 25> 모태신앙 여부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8
<표 26> 출석년수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39

<표 27> 미사참여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40
<표 28> 성경읽기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41
<표 29> 단체가입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42
<표 30> 세례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43



Abstract

The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Fortunetelling in the Catholic Church in Jeju

Chang-Woo Mo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Fortunetelling has a long history in Korean society, Though it has been called 'superstition' for a long time by the public in our industrial society, it is a wide spread social phenomenon.

This examination investigates the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atholic believers about fortunetelling, by looking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fortunetelling among Catholic believers on Jeju Island. I then consider what is the social cause of the double life of Catholic believers who also continue practicing fortunetelling.

First of all, if I survey the rate of fortunetelling among Catholic believers on Jeju, the percentage with no experience in fortunetelling is 64.9%. These people are not only Catholic believers but also still participate in and depend on fortunetelling.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d experience with fortunetelling but stopped when they became Catholics is 15.5%. Certainly people change people when they become Catholic believers. So among those who do not practice fortunetelling the total is 80.4%.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practice before becoming Catholic is 13%, and after becoming

Catholic is 6.6%. So they total 19.6%.

Becoming a Catholic believer means accepting Catholic doctrine and following the doctrine in one's life. On this point, the fact that the roughly 20% rate of those who practice fortunetelling among Catholic believers is a testimony to the gap existing between the doctrine and the believer's life.

Among Catholics, some check their horoscope for the day. That is not serious. But others consulted with a fortuneteller for pay about the four pillars, the visage, and the lines of the palm. These people number over 10%. So we discover that one in ten accept the fate found in the four pillars, the visage, and the lines of the palm. Furthermore, the cases of those who visited a fortuneteller and had a shaman ritual of exorcism, or wore an amulet are almost 5%. So half the number of those who have visited a fortuneteller had a shaman ritual and wore an amulet.

I then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Catholic believers on Jeju about fortunetelling. A noticeable point in this investigation is that not only those who have been to a fortuneteller, but also those who have not are so tolerant of it. Those who accept as fate the result of the four pillars are few but almost 40% of believers trust in fortunetelling. It is an indication that even if believers do not go to a fortuneteller now, it is very likely that someday they will go to one.

And we must keep an eye on the fact people are more tolerant about namings, the choice of auspicious days, and the geomantic system for choosing ancestors' graves than taking fortunetelling for personal fate.

It shows that even though believers have accepted the Catholic faith, they often think traditional customs like naming, the choice of an auspicious day, and choosing a grave site are not a problem. Therefore we can observe the dual-structure of Catholic belief with the sense of traditional fortunetelling customs in the believer's mind.

I also think that the naming, the choice of an auspicious day, and choosing

a grave site are not perceived as fortunetelling but just traditional customs for Catholic believers on Jeju.

Finally using ANOVA, which verifies the general character, the socio-economic character, and the religious character of believers in Jeju. I then check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life and the degree of fortunetelling. I discovered that the attitude toward fortunetelling is related to the general character and socio-economic character of the believers in Jeju. It is caused by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ciety that bring uncertainty in mind and spirit. Nowadays people usually depend on the internet, mass-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The result is easy access to fortunetelling. Furthermore religious character and lifestyle within the Church were related to fortunetelling. Usually believers who have a passion about the religious life also have an unorthodox view about fortunetelling. They seem to have a natural inclination to turn to fortunetelling and at the same time have a passion for their Catholic faith.

Mankind never had a time totally free from fortunetelling, and the people are still dominated by a deep sense of fortunetell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prove that.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atholic believers in Jeju have a liberal attitude about fortunetelling.

The Catholic church does not look kindly on fortunetelling. However, we now recognize the fact that fortunetelling includes the folk-religion and customs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So it will be good if the Catholic church recognizes this as Korean culture. In order to do this, we urgently need the continual concern and understanding of this culture from inside the Catholic church.

I. 서론: 문제인식 및 연구목적

천주교 신자가 되면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베버가 지적하듯이 제도 종교로서의 천주교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형태의 ‘가르침’을 제시하며 일상생활과 떨어져서 ‘그 위에’ 또는 ‘외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의례와 신앙체계는 세속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Clifford Geertz, 1998: 207).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를 일반 신자들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종종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어 하고, 비록 주술적일지라도 해결 방안을 손에 쥐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점복신앙은 매력적이다.

천주교인들에게 점을 치는 점복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물론 결정은 신자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일단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천주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영세를 받고 나면, 점치는 행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천주교와 점복신앙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철학관, ○○도사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점집을 찾아가는 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위배한 행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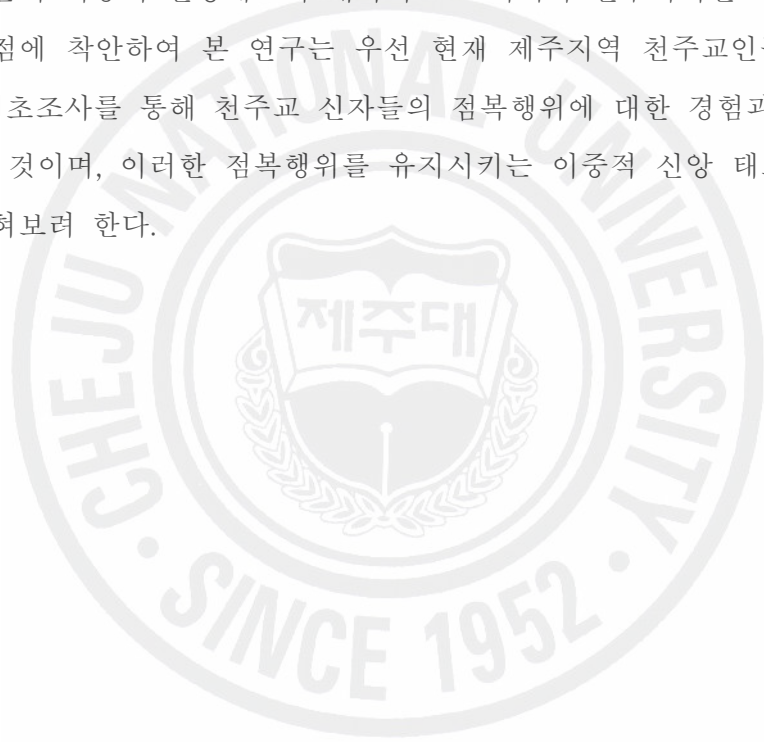
그러나 교회가 이처럼 점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반 신자들이 모두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천주교인들 중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린 ‘오늘의 운세’란을 읽고 대수롭지 않게 자신들의 운명을 기대해 보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더욱이 철학관에서 ‘점’, ‘사주’, ‘관상’ 등을 보고와도, 고백성사를 보면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천주교인들도 목격하게 된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점을 보러 점집을 다녀오고 난 뒤 양심의 가책으로 고백성사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자 고백소를 방문하는 신자들이 다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사제의 신분으로서 고백소에서 만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점복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으며, 그 중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다수의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이중적인 신앙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천주교와 점복신앙을 넘나들면서 이중적인 신앙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믿음’과 ‘일상’의 구별은 별개의 종교적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는 천주교를 포함한 제도종교들이 신자들에게 심리적이고 영적인 위안을 주는 수준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점복행위를 포함한 무속신앙은 영적 엑소시즘(exorcism, 굿), 성령과의 직접적 교통, 치유 등을 통해 오랫동안 제주지역 주민의 일상적 에토스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점은 제주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 이후에도 점복행위 등을 동시에 지속시키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이중적 신앙태도에 대하여 보고되거나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우선 현재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행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행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형태를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점복행위를 유지시키는 이중적 신앙 태도의 사회학적 요인을 밝혀보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제도종교와 민간신앙(점복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

그동안 점복에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민속학과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져 왔으며,¹⁾ 신학 분야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²⁾ 사회학에서는 일부 종교사회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이 있다.³⁾ 그 중 박성규(1986)는 ‘민속신앙과 한국 기독교 토착화의 상관관계’⁴⁾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는 기독교와 민속신앙의 상호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심성을 연구한 뒤, 민속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유사성을 파악하고 민속신앙과 기독교 주요 교리를 비교하여 민속신앙이 기독교에 끼친 공과 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정인구(1994)는 ‘한국 교회의 무속화 현상에 관한 연구’⁵⁾에서 한국인의 심성 속에 있는 무속과 기독교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성서의 ‘축복사상’과 무속의 ‘기복사상’과의 만남을 통해 무속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과 무속에 의해 변질된 한국 교회의 모습 등을 조명하였다.

이 외에도 원용국⁶⁾(1992)과 노윤식⁷⁾(1998) 등도 기독교인들의 이중적 종교 태도에 있어 민간신앙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주로 신학 및 종교학 등지에서 이뤄져, 민간신앙의 역할 및 민간신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심성 문제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이중적 종교태도 이면에 있

-
- 1) 김태곤, 「한국의 占卜」, (서울: 민속苑, 1983).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 2) 대표적으로 가톨릭에서는 1987년 7월에 ‘토착화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목연구소 안에 결성되었고 이 연구를 중심으로 12년 동안 50회에 걸쳐 ‘토착화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어왔고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와 발표가 진행 중에 있다.
 - 3) 조성윤을 비롯한 사회학자들의 점복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 4) 박성규, “민속신앙과 한국기독교 토착화의 상관관계”,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논문」(1986), 참조.
 - 5) 정인구, “한국 기독교의 무속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1994), 참조.
 - 6) 원용국, 「韓國民間信仰의 神觀에 對한 宣敎學的 研究」,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논문」(1992), 참조.
 - 7) 노윤식, ‘혼합적 민중 기독교인들의 이중현신에 대한 선교 신학적 고찰’, 「선교신학」 2호, 87(서울: 한국 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1997), 참조

는 사회적 배경 및 실증적 맥락의 연구는 다소 부진하다.

다만 박찬호는 ‘한국 교회의 민간신앙에 대한 인식 분석 및 목회적 대안’⁸⁾연구에서 실증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교회의 신자들이 민간신앙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사회과학적 접근을 터놓았다. 그러나 이것도 개신교에 한정되어 이뤄진 연구였기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점복신앙을 경험하고 자신의 의식 안에 놓여있는지 분석을 통한 검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찬호와 같은 실증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천주교인들의 점복신앙을 경험적으로 증명해내고, 이를 통해 이중적인 신앙태도를 보이는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점복(행위)에 대한 개념

점복이 생겨난 역사는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것이 단지 개인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점복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해왔다. 심지어는 현대의 복잡하고 세속화된, 그리고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도 점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⁹⁾

점이란 용어와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는 점복(占卜)은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징조를 미리 판단하고자 하는 술법 혹은 기술을 뜻한다(최운식, 2004). 이 점복은 주술과 신앙 등이 결합되어 방술(方術)이라 불리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방술은 간단히 말해 원시적 의술, 복서(卜筮), 점성술, 장생법 등이 혼합된 주술을 의미한다(이용주, 1989).

이런 점복 행위는 인류의 초기부터 시작되어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역과 공동체에 따라 상당수의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산재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오늘날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종류와

8) 박찬호, ‘한국교회의 민간신앙에 대한 인식분석 및 목회적 대안’, 『성결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석사논문』(2005), 참조.

9) 이원규, ‘점문화가 끼치는 사회적 해독’, 『빛과 소금』 11(서울: 누리원, 1995), 38.

방법이 널리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점술(占術)과 복술(卜術)로 점복행위를 나뉘 볼 수 있는데, 최운식(2004)은 현재 한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점복의 종류를 몇 가지로 묶어 신점(神占), 작괘점(作卦占), 몽점(夢占), 작명(作名), 해명(解名), 풍수점(風水占), 관상(觀相)·수상(手相)등이 있다고 밝혔다.

신점은 신이 내린 무당이나 명두, 동자, 점바치 등이 하는 영점(靈占)이다. 작괘점은 『周易』의 괘로 인간의 운수를 풀어 나가는 것으로, 육효점(六爻占)·사주점(四柱占)·오행점(五行占)·산점(算占) 등이 이에 속하는데, 한문을 알고 易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한다.

몽점(夢占)은 꿈을 꾸 사람 자신이 꿈에 대해 신비성을 느껴 스스로 해몽(解夢)하기도 하고, 꿈해몽을 전문으로 하는 해몽가(解夢家)가 해몽을 하기도 한다. 해몽가 중에는 신이 내려 신점을 하는 쑈나, 역리를 공부하여 작괘점을 하는 점복자가 많다.

풍수점(風水占)은 한문을 알고, 풍수지리(風水地理)를 공부한 사람들이 집터나 묘자리를 새로 잡아 주거나, 이미 자리 잡은 집터나 묘 자리의 길흉(吉凶)을 보아 주는 것이다.

작명(作名)과 해명(解名)은 성명의 한자음과 획수를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로 푸는 것으로, 한문을 배우고 역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한다.

관상(觀相)·수상(手相)은 상리(相理)를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이들은 작괘점 및 작명(作名)·해명(解名)과 병행하여 하기도 한다.¹⁰⁾

이러한 종류의 점복은 예조(豫兆), 금기(禁忌), 주술(呪術)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예조나 점복은 미래를 사전에 미리 아는 지식과 기술을, 금기나 주술은 예측 불가능의 결과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나 흔히 서로 경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점복, 예조, 금기, 주술 모두를 점 혹은 점복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중 제주지역에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복행위는 사주점, 관상, 수상, 작명, 궁합, 풍수 점, 굿, 부적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과 공동체

10) 최운식 '점복신앙의 의미와 원리' 민속 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2」,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4). 68

에 따라 점복행위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행위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점복 종류를 투입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제주지역의 일반적인 점복행위의 종류를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복 행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8가지의 점복행위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본 논문에 사용될 점복행위의 종류는 ① 사주팔자 ② 관상 ③ 수상(손금) ④ 작명 ⑤ 궁합 ⑥ 풍수지리 ⑦ 굿 ⑧ 부적 ⑨ 오늘의 운세 등이다. 이 중 사주팔자와 관상, 수상, 작명, 궁합, 풍수지리 등은 주로 철학관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굿과 부적은 무당에게서, 오늘의 운세는 신문이나 잡지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살펴보는 오늘의 운세를 점복행위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오히려 철학관이나 무당에게 찾아감으로써 겪는 공공의 시선 및 신앙적 갈등의 부담감을 없애고, 공공연하게 마주할 수 있고, 드러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믿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운세 또한 분석해야할 대상이라고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2006년 5월31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총인구는 49,624,269명이다. 그리고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천주교인은 4,768,242명으로 한국 총 인구 대비 9.6%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통계와 비교해 볼 때, 제주도 총인구는 561,695명이고, 그 중에서 제주천주교인 숫자는 63,575명으로 제주총인구 대비 11.32%이다.¹¹⁾ 이러한 비율은 종교 인구만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제주 종교 인구 중에서 약 23%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¹²⁾ 한편 제주천주교인 63,575명 중에 남자는 26,397명(41.52%) 여자는 37,178명(58.48%)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만 20세 이상의 천주교인을 표본으로 370명을 추출하였다. 남녀, 연령, 교회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교회별 할당 유작위 표집 방법으로 표본수를 조정하고, 제주도 내에 천주교 신자들이 소속된 시 내외 24개 본당(총 24개 본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들이 어느 정도 점복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점복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 370명 조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의 남자와 여자 비율은 4:6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5.9%이고, 미혼이 24.1%이다. 이는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연령대는 40대가 25.9%로 많기는 하지만,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비교적 골고루 표집 되었다.

11) '가톨릭 신문', 2007년 4월 15일자 참조.

12)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한국종교인구(24,970,766명 /47,041,434명 :전체의 53%)와 제주종교인구(272,590명/530,686명 :전체의 51%)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주천주교인이 제주종교인구 272,590명 가운데 63,575명(23%)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구성비(%)
성 별	남자	152	41.1
	여자	218	58.9
연 령	20대	74	20.0
	30대	69	18.6
	40대	96	25.9
	50대	74	20.0
	60대 이상	57	15.4
결혼상태	기혼	281	75.9
	미혼	89	24.1

<표 2>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직업	학생	27	7.3
	사무직	34	9.2
	공무원	17	4.6
	자영업	57	15.4
	전문직	57	15.4
	교사	27	7.3
	기능직	22	5.9
	판매/서비스직	89	24.1
	전업주부	26	7.0
	무직	10	2.7
	기타	4	1.1
	월 소득	50만원 이하	41
50만원-100만원		64	17.3
101만원-200만원		118	31.9
201만원-300만원		53	14.3
301만원-400만원		25	6.8
401만원 이상		21	5.7
무응답		48	13.0
학력	중졸이하	36	9.7
	고졸	159	43.0
	대졸	161	43.5
	대학원졸	14	3.8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2>에서 보여주듯이 판매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이가 24.1%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영업, 전문직이 각각 15.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 분포는 제주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크게 차이

가 없어 보인다. 특별히 제주지역이 관광지이기에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일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월 소득은 101만원에서-200만원이 31.9%로 가장 많이 있다. 대체로 생활정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43.50%, 고졸 43.0%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학력은 제주지역의 일반적 분포보다는 천주교인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제주지역의 직업분포를 검토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볼 수는 없었다.

이 밖의 전체 조사대상자의 신앙적 특성은 <표 3>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청년부와 학생부에 소속한 대상자는 20%이고, 그 밖의 일반 평신도가 80.0%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를 만 20세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회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았는데, 직분이란 교회의 다양한 역할 책임자들을 가리킨다. 물론 교회직분이 없어도 교회생활에 충실한 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직분을 맡고 있을수록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자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교회직분을 가진 이들은 53.2%로, 직분을 가지지 않은 46.8%보다 조금 많았지만, 응답자들이 비교적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신자가 반반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태신앙은 천주교 신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줄곧 천주교 신자로 생활하는 경우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23.8%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5%는 부모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자신이 선택해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것은 제주지역 천주교가 정체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인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출석년수는 10년-20년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또 미사참여는 매주 참석하는 이가 7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성경읽기는 생각날 때 가끔 읽는 이가 46.2%로 나타났으며, 기도정도는 하루 한차례이상 하는 이가 제일 높은 비율로 34.3%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출석년수와 미사참여, 성경읽기, 기도정도들은 모두 천주교인의 정체성과 성숙을 가져오는 신앙 훈련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교회 출석률이 높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신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교회소속	학생	1	0.3
	청년	73	19.7
	일반평신도	296	80.0
교회직분	신심단체장 및 간부	88	23.8
	사목회 회장단 및 간부	33	8.9
	교리교사	43	11.6
	구역반장	23	6.2
	사회복지임원	3	0.8
	직분 없음	173	46.8
	무응답	7	1.9
교회출석	모태신앙	88	23.8
	모태신앙 아님	278	75.1
	무응답	4	1.1
출석년수	2년 이하	35	9.5
	2년-5년	30	8.1
	5년-10년	44	11.9
	10년-20년	79	21.4
	20년 이상	181	48.9
	무응답	1	0.3
미사참여	매주참석	285	77.0
	거의참석	64	17.3
	월1회 정도	11	3.0
	특별한때만	9	2.4
	무응답	1	0.3
성경읽기	날마다	38	10.3
	일주일에 2-3회	79	21.4
	생각날 때 가끔	171	46.2
	거의 읽지 않음	82	22.2
기도정도	매일 여러 차례	106	28.6
	하루한차례	127	34.3
	일주일에 2-3회	65	17.6
	특별한 때만	58	5.9
	거의 하지 않음	14	2.7

또한 교회생활을 이루는 몇 가지 내용을 <표 4>에서 읽을 수 있다. 단체가입은 2개 가입한 이가 28.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단체가입은 천주교인으로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 기반이다. 단체가입에 참여하는 이들은 신앙쇄신의 체험과 신자로서의 소속감이 강해지는 기회가 된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이 370명 중 80.5%(298명)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체 활동은 비교적 자주 참여하는 이가 36.8%로 가장 많았다. ‘가끔’ 응답한 이가 33명 그리고 ‘비교적 자주’와

‘매우 자주’는 합쳐서 68.1%(252명)로 많은 신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로 보인다. 세례¹³⁾는 성인이 되어 세례 받은 이가 52.2%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앞의 모태신앙이 아닌 이들의 비율 75.1%와 비교하면 차이가 22.9%이다. 이 22.9%는 어린이나 청소년시기에 교회생활을 한 이들인 것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자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이보다 성장하면서 천주교에 들어온 이들이 많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종교로써 사람들에게 갖는 천주교의 이미지가 좋은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교회생활정도

구 분		빈 도(명)	구성비(%)
단체가입	없다	72	19.5
	1개	94	25.4
	2개	107	28.9
	3개	65	17.6
	4개	22	5.9
	5개	10	2.7
단체활동	거의안함	55	14.9
	어쩌다 한번	20	5.4
	가끔	33	8.9
	비교적 자주	136	36.8
	매우 자주	116	31.4
	무응답	10	2.7
세례	유아세례	89	24.1
	예비자	10	2.7
	청소년기에 세례	75	20.3
	성인세례	193	52.2
	세례받지않음	2	0.5
	무응답	1	0.3

이들 전체 조상대상자들은 다시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별한 뒤, 점복행위의 경험 유무를 물어 4개의 집단으로 재구분하여 ①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도 점복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고, 천주교인이 된 후에도 점복행위의 경험이 없는 집단, ②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 점복행위를 경험했지만, 천주교인이 된 후에 점복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 ③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 점복행위를 경험하였고, 천주교인이 된 후에도 점복행위를 경험한 집단, ④ 천주교인이

13) 천주교인이 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신앙교육(6개월~1년)을 거쳐, 천주교인이 되는 입문예절이다.

되기 전에는 점복행위의 경험이 없었지만, 천주교인이 된 후에 점복행위 경험자들을 통해 점복행위를 경험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중 ③과 ④의 경우가 이중적 신앙태도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대상이 되겠다.

2. 자료수집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행위를 통한 이중적 신앙 태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양적 방법론인 설문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집은 2007년 8월 4일부터 9월 1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성당별로 전체 신자대비에 따른 비율을 정하고 성당별 할당 유작위 표집방법에 의해 신자수를 계산하였다. 성당별 할당에 따라 비율을 계산하면서 먼저 만20세 이상의 교인들의 수를 확인하고 성별, 연령, 교회생활의 열심정도에 따라 골고루 배정되도록 조절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연령은 20-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교회생활 열심정도는 열심, 보통, 미사참석만 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원을 약 400여명으로 정하고 할당에 따른 계산에 의해 388명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사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성당을 직접 방문하여 본당 신부의 협력과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각 본당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조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래서 사무장들이 각 성당에서 주일이나 평일에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자가 기재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3-4주 기간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본당 사무실에서 수거하여 회수하였다. 질문유형은 주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던 만큼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도 직접 방문과 성실한 협조의 덕택으로 388부의 설문지가 배포·회수되었다. 통계 처리에 설문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388부중 18부가 별로 응답한 내용이 부실하여 제외하였다.

<표 5> 제주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에 대한 의식 설문지 참여 본당 분포

본당 명 (신자수/만 20세 신자수)	응답자 수(명)	구성비(%)
중앙성당 (3,289/2570)	25	6.7
동문성당 (3,239/2638)	26	7.0
동광성당 (3,551/2461)	26	7.0
화북성당 (2,448/1707)	18	4.8
광양성당 (6,354/4844)	50	13.5
서문성당 (4,014/3210)	34	9.1
조천성당 (946/684)	7	1.8
신제주성당 (3,610/2764)	26	7.0
연동성당 (2,264/1596)	17	4.5
노형성당 (3,487/2439)	26	7.0
하귀성당 (829/607)	6	1.6
한림성당 (2,645/2070)	22	5.9
금약성당 (399/308)	3	0.8
신창성당 (844/736)	7	1.8
고산성당 (910/766)	8	2.2
모슬포성당 (1,145/910)	8	2.2
중문성당 (745/537)	5	1.3
서귀북자성당 (2,432/1871)	13	3.5
서귀포성당 (2,212/1709)	18	4.8
효돈성당 (779/576)	6	1.6
남원성당 (623/488)	5	2.3
표선성당 (457/362)	3	0.8
성산포성당 (991/746)	7	1.8
김녕성당 (438/318)	4	1.0
총 계(63,575/13,058)	370	100

조사 결과 수집된 설문 응답지는 모슬포-8부, 고산-8부, 신창-7부, 한림-22부, 금약-3부, 표선-3부, 성산포-7부, 김녕-3부, 서귀북자-13부, 서귀포-18부, 효돈-6부, 중문-5부, 남원-5부, 연동-17부, 노형-26부, 중앙-25부, 신제주-26부, 동광-26부, 화북-18부, 동문-27부, 조천-7부, 하귀-6부, 서문 34부, 광양-50부등 총 370부였다.

조사의 편의를 위해 시내 신 제주 지역(신제주, 연동, 노형, 하귀) 성당과 시내 구 제주 지역(중앙, 동문, 동광, 화북, 광양, 서문, 조천) 성당, 서귀포 지역(서귀

포, 서귀북자, 효돈, 중문), 시외 동부지역(남원, 표선, 성산포, 김녕)성당, 시외 서부지역(한림, 금악, 신창, 고산, 모슬포)성당 등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분류하였다.

3. 분석 방법

응답한 설문지는 편집, 코딩과정을 거쳐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10.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신앙적 특성과 교회생활의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성별, 결혼상태, 모태신앙 여부, 교회소속에 따른 점복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고,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월 소득, 교회소속, 교회직분, 모태신앙 여부, 출석년수, 미사참여, 성경 읽기, 기도정도, 단체가입, 단체 활동, 세례에 따른 점복경험과 인식 차이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변량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변수의 타당성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변수의 타당성 검증¹⁴⁾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하는 속성을 측정도구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복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몇 개의 요인으로 묶는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 6> 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설문항 22), 23), 26)을 3개 요인으로 잡아 지수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등간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없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면 1점, ‘거의 없다’ 혹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면 2점, ‘가끔 해보았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이면 3점, ‘자주 해보았다’ 혹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이면 4점을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 하

14) 신왕우, “브랜드 이미지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호텔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71.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점복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6> 요인 군집량

변 수	초 기	요인회전 전
점	1.000	0.471
작명2	1.000	0.417
궁합2	1.000	0.652
중대사	1.000	0.736
택일	1.000	0.685
명당	1.000	0.649
금기사항	1.000	0.646
사주팔자	1.000	0.676
관상	1.000	0.747
수상	1.000	0.667
작명	1.000	0.684
궁합	1.000	0.703
풍수지리	1.000	0.705
굿	1.000	0.642
부적	1.000	0.666
오늘의운세	1.000	0.552
사주팔자	1.000	0.460
관상1	1.000	0.726
수상1	1.000	0.532
작명1	1.000	0.615
궁합1	1.000	0.639
풍수지리1	1.000	0.660
굿1	1.000	0.587
부적1	1.000	0.588
오늘의운세1	1.000	0.356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점복행위를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천주교인이 된 후 점복경험,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은 사주팔자, 관상, 수상, 작명, 궁합, 풍수지리, 굿, 부적, 오늘의 운세로 구분하였으며, 천주교인이 된 후 점복경험은 사주팔자1, 관상1, 수상1, 작명1, 궁합1, 풍수지리1, 굿1, 부적1, 오늘의 운세1 그리고 점복유형의 인식은 점, 작명2, 궁합2, 중

대사, 택일, 명당, 금기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표 7> 요인의 추출

변 수	초기 고유치			요인회전 전			요인회전 후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점	6.925	27.699	27.699	6.925	27.699	27.699	6.068	24.271	24.271
작명2	5.473	21.893	49.592	5.473	21.893	49.592	5.131	20.525	44.796
궁합2	3.061	12.243	61.835	3.061	12.243	61.835	4.260	17.039	61.835
중대사	1.134	4.537	66.372						
택일	0.968	3.874	70.246						
명당	0.808	3.234	73.480						
금기사항	0.745	2.978	76.458						
사주팔자	0.616	2.466	78.924						
관상	0.543	2.170	81.094						
수상	0.462	1.848	82.942						
작명	0.437	1.749	84.691						
궁합	0.416	1.665	86.356						
풍수지리	0.385	1.540	87.896						
굿	0.365	1.460	89.356						
부적	0.347	1.387	90.742						
오늘의운세	0.335	1.342	92.084						
사주팔자	0.304	1.216	93.301						
관상1	0.286	1.145	94.446						
수상1	0.268	1.071	95.517						
작명1	0.236	0.945	96.461						
궁합1	0.211	0.845	97.306						
풍수지리1	0.196	0.785	98.092						
굿1	0.181	0.723	98.814						
부적1	0.159	0.634	99.448						
오늘의운세1	0.138	0.552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26개의 측정항목으로 측정된 점복행위는 몇 개의 요인으로 묶는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변량 통계기법의 하나인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 동질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변수의 타당성 검증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요인 추출 모델은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추출수의 결정방식은 고유치(eigen value)가 최소 1을 넘으면서 조사항목의 내용에 맞게 <표 7>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구성요소별 회전된 요인 Matrix(a)

변 수	구 성 요 소		
	1	2	3
관상	0.860	0.052	0.065
풍수지리	0.836	0.076	0.007
궁합	0.827	0.079	0.115
작명	0.825	0.010	0.038
부적	0.814	-0.008	0.052
수상	0.814	0.054	0.032
사주팔자	0.808	-0.009	0.151
굿	0.800	0.026	-0.030
오늘의 운세	0.725	-0.136	0.086
관상1	0.021	0.843	0.118
풍수지리1	0.102	0.791	0.156
궁합1	0.000	0.786	0.145
작명1	0.033	0.780	0.072
굿1	0.122	0.755	0.041
부적1	0.108	0.751	0.109
수상1	-0.055	0.718	0.116
사주팔자1	-0.065	0.659	0.147
오늘의 운세1	-0.116	0.548	0.205
중대사	0.030	0.191	0.836
택일	0.084	0.126	0.814
금기사항	-0.049	0.085	0.798
명당	0.052	0.104	0.797
궁합2	0.170	0.114	0.781
점	0.034	0.152	0.669
작명	0.124	0.199	0.601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9 iterations			

요인의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측정항목들은 요인 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특정변수의 모든 적재량을 제공하여 합한 값을 군집(communality)이라 하는데, 이는 분석결과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특정변수의 분산이다. 그리고 요인의 회전은 최초의 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다. 요인 회전 방식은 <표 8>와 같이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항목의 수를 줄여서 요인의 해석에 중점을 두는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¹⁵⁾

2) 변수의 신뢰도 검증

신뢰성은 측정된 결과치의 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 측정방법에는 동일 측정도구 2회 측정 상관도, 동등한 2가지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치의 상관도, 항목분할 측정치의 상관도, 내적 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¹⁶⁾

<표 9> 점북 행위 신뢰도 검증

점북 행위 신뢰도		Cronbach - α	문항수	
FACTOR 1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북 경험	사주팔자	0.933	9
		관상		
		수상		
		작명		
		궁합		
		풍수지리		
		굿		
		부적		
		오늘의 운세		
FACTOR 2	천주교인이 된 후 점북 경험	사주팔자1	0.884	9
		관상1		
		수상1		
		작명1		
		궁합1		
		풍수지리1		
		굿1		
		부적1		
오늘의 운세1				
FACTOR 3	점북 유형의 인식	점	0.879	7
		작명2		
		궁합2		
		중대사		
		택일		
		명당		
금기사항				

15) 같은 책, 71-72.

16) 같은 책, 72.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질성이 약한 항목을 탈락시키고 동질성이 강한 항목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항목들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인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롬바하의 알파(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고, 점복행위를 측정된 결과는 각 요인별로 아래의 <표 9>와 같이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이 Cronbach - α 값 0.933(93.3%), 천주교인이 된 후 점복경험이 0.884(88.4%),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이 0.879(87.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3개의 요인들이 각각 9변수, 9변수, 7변수들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분석 결과

1.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 경험

<표 10>은 다양한 점복 행위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물어 본 결과이다. 표에 나타난 점복의 종류로 사주팔자, 관상, 수상, 작명, 궁합, 풍수지리, 오늘의 운세가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곳을 한 적이 있는지, 부적을 사서 지너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직접 점을 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실천 행위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표 10> 점복신앙의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명, %)

경험유무 점복종류	○ ◇	● ◇	○ ◆	● ◆
사주팔자	56(12.9)	20(9.1)	46(9.0)	248(11.5)
관상	37(8.5)	22(10.0)	65(12.6)	246(11.4)
수상(손금)	60(13.8)	27(12.3)	75(14.6)	208(9.6)
작명	40(9.2)	29(13.2)	60(11.7)	241(11.2)
궁합	39(9.0)	23(10.5)	61(11.8)	247(11.4)
풍수지리	36(8.3)	23(10.5)	46(8.9)	265(12.3)
곳	23(5.3)	12(5.5)	54(10.5)	281(12.9)
부적	27(6.2)	10(4.6)	43(8.3)	290(13.4)
오늘의 운세	116(26.7)	53(24.2)	65(12.6)	136(6.3)
합계	434(100)	219(100)	515(100)	2162(100)

- 주) ○ 천주교인 전 경험 있음 ◇ 천주교인 후 경험 있음
 ● 천주교인 전 경험 없음 ◆ 천주교인 후 경험 없음

먼저 검토할 것은 과연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점복 행위를 경험한 사람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표 10>을 보면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 점복 행위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에 경험한 사람도 6.6%를 차지해서 모두 합치면 35.1%가

점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도,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에도 전혀 점복 경험이 없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경우가 64.9%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100명중 65명은 전혀 점집에 가지도 않았고, 신문 등 매스컴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에도 관심을 갖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는 점복 행위의 경험이 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는 점복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을 합치면 80.4%가 천주교 신자로서 점복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반면 천주교인이면서 점복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6%인데, 이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도 후에도 계속 점복 행위를 하는 사람이 13%이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는 점복 행위의 경험이 없다가 신자가 된 다음에 점복행위를 한 사람도 6.6%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점복을 금지하는 천주교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것이다.

<표 11> 천주교 신자의 점복 경험 유형 (단위 : 명, %)

점복종류	경험유무		합계
	○◇	●◇	
사주팔자	56(12.9)	20(9.1)	76(22.0)
관상	37(8.5)	22(10.0)	59(18.5)
수상(손금)	60(13.8)	27(12.3)	87(26.1)
작명	40(9.2)	29(13.2)	69(22.4)
궁합	39(9.0)	23(10.5)	62(19.5)
풍수지리	36(8.3)	23(10.5)	59(18.8)
굿	23(5.3)	12(5.5)	35(10.8)
부적	27(6.2)	10(4.6)	37(10.8)
오늘의 운세	116(26.7)	53(24.2)	169(50.9)
합계	434(100)	219(100)	653(100.0)

주) ○ 천주교인 전 경험 있음 ◇ 천주교인 후 경험 있음
 ● 천주교인 전 경험 없음

<표 11>은 <표 10>으로부터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에 점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점복 경험 유형이다. 우선 천주교인이 되기 이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오늘의 운세이다. 이는 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것은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169명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한다. 일부러 점집을 찾아가거나 역술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를 가벼운 마음을 보고 자신의 그날의 운명을 예상해보는 것을 두고 점복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사주팔자와 관상, 수상을 보면 수상(손금)이 87명으로 13.3%, 사주팔자가 76명으로 11.6%, 관상이 59명으로 9% 순이다. 사주팔자와 수상, 관상은 점집에서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분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길거리나 공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점집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모두 대체로 10% 안팎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궁합은 역술인에게 결혼 예정자의 사주를 제시하고 결혼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9.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용은 사주에 비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대상자를 사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인연이 맺어진다는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불안 심리 때문에 결혼 예정자의 부모가 궁합이 맞는 상대가 아니면 결혼을 반대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작명과 풍수지리는 사주팔자, 수상, 관상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모두 10% 안팎의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작명은 주로 어린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새로 개업하는 상점 또는 회사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는 것인데, 이 경우 비용이 적어도 10만원이 넘고, 상호는 2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작명을 역술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전통 관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름이 불길하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역술인의 풀이를 따라 새 이름을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상호를 역술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이름이 좋아야 돈을 벌고 재수가 좋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 풍수지리 역시 조상의 묘를 잘 써야 자손

이 해를 입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작명과 풍수를 역술인에게 의뢰한 행위를 반드시 운명론적 점복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굿을 한 사람도 전체의 5.4%, 부적을 지닌 경험이 있는 사람도 5.7%를 차지한다. 이것은 앞의 다른 유형과는 달리 가장 적극적으로 점복의 결과를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운명을 무당 또는 역술인에게 맡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표 12> 천주교인 전·후에 따른 점복 경험 (단위 : 명, %)

점복 종류	천주교인 전·후	천주교인이 되기 전	천주교인이 된 후	합 계
사주팔자		102(57.3)	76(42.7)	178(100)
관상		102(63.4)	59(36.6)	161(100)
수상(손금)		135(60.8)	87(39.2)	222(100)
작명		100(59.2)	69(40.8)	169(100)
궁합		100(61.7)	62(38.3)	162(100)
풍수지리		82(58.2)	59(41.8)	141(100)
굿		77(68.7)	35(31.3)	112(100)
부적		70(65.4)	37(34.6)	107(100)
오늘의 운세		181(51.7)	169(48.3)	350(100)
합계		949(59.2)	653(40.8)	1602

<표 12>은 <표 10>에서 천주교인 전·후에 따른 점복경험의 결과이다. 우선, 굿과 부적이 각각 천주교인 전·후에 따라 37.4%와 30.8%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굿과 부적이 가장 적극적인 점복의 결과를 따르는 행위로 간주되는데, 천주교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상 26.8%, 궁합 23.4%, 수상(손금) 21.6%, 작명 18.4%, 풍수지리 16.4%, 사주팔자 14.6%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천주교인 전·후에 따라 평균 18.4%로 상당히 변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가장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늘의 운세는 다른 점복행위에 비해 가장 적은 비율(3.4%)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의 운세가 접근성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다른 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널

리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천주교인으로써도 교회생활이 주는 신앙의 목적과 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대중적인 취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점복행위가 천주교인이 되기 전보다 천주교인이 된 후에 점복경험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주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써 나름대로의 훈련과 노력으로 교회에 충실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설문지를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교회출석과 미사참여, 성경읽기, 기도생활, 단체가입과 단체 활동, 세례¹⁷⁾ 등이 있다. 이러한 교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을 통해 천주교인들은 점복행위보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천주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복에 참여하는 평균 40%를 넘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 제주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점복에 대한 인식

다음은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점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점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점복 행위에 대해 나름대로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점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제주 지역 천주교인들이 점복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먼저 왜 점을 치게 되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370명 중에서 176명이 응답을 했는데, <표 13>을 보면, 호기심 56명(15.1%), 건강 21명(5.7%), 사업 19명(5.1%), 결혼 16명(4.3%), 진학과 승진 6명(1.6%), 취미 1명(0.3%) 순으로 나온다. 물론 호기심, 또는 취미라고 대답한 것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갖고 가볍게 점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그리고 결혼이나 진학, 승진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17) 천주교인이 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신앙교육(6개월~1년)을 거쳐, 천주교인이 되는 입문예절이다.

<표 13> 왜 점을 쳤는가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호기심(취미)	57	32.4
건강	21	11.9
사업	19	10.8
결혼	16	9.1
진학과 승진	6	3.4
기타	57	32.4
합계	176	100.0

<표 14> 점복행위를 하고 나서 갈등이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전혀 느끼지 않았다	56	15.1
별로 느끼지 않았다	59	16.0
약간 느꼈다	48	13.0
아주 많이 느꼈다	39	10.5
무응답	168	45.4
합계	370	100.0

다음으로 <표 14>에서는 점복 행위를 하고 나서 갈등이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약간 느꼈다’는 응답이 48명으로 13%, ‘아주 많이 느꼈다’는 응답이 39명으로 10.5%가 되어, 죄책감을 느꼈다는 응답은 모두 87명에 23.5%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56명으로 15.1%,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59명으로 16%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점복 행위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우가 반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 사주팔자대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191	51.6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143	38.6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28	7.6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2	0.5
무응답	6	1.7
합계	370	100.0

<표 15>에서 천주교인들의 인식 가운데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주이다. 사주는 점을 치러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점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51.6%인 191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38.6%인 143명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90% 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정말 그렇다고 본다’는 0.5%인 2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체로 그렇다고 본다’도 7.6%인 28명에 그쳤다. 이는 앞서 천주교인 중에서 점복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9.6%라는 결과, 그리고 약 40%의 응답자가 점괘를 상당히 믿을 만 하다고 응답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복 행위를 경험했고, 약 40%가 점괘가 믿을 만 하다고 응답했지만, 이들이 모두 자신의 미래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표 16> 점복 유형별로 본 인식

응답내용 설문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④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무응답	합계
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8(2.1)	209(56.5)	129(34.9)	23(6.2)	1(0.3)	370(100)
자녀의 이름은 점명가나 역술 가에게 맡겨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1.4)	230(62.2)	100(27.0)	34(9.2)	1(0.3)	370(100)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이 맞아 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7(1.9)	215(57.8)	100(27.0)	48(13.0)	1(0.3)	370(100)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역 술인이나 점쟁 이 말을 참조해 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6(1.6)	270(73.0)	88(23.8)	5(1.4)	1(0.3)	370(100)

이사할 때 점쟁이나 역술가에게 택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1.6)	284(76.8)	71(19.2)	8(2.2)	1(0.3)	370(100)
조상의 모를 쓸 때 풍수지리에 맞게 명당을 골라서 써야 후손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6(1.6)	221(69.7)	95(25.7)	45(12.2)	3(0.8)	370(100)
금기사항이나 속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7(1.9)	235(63.5)	108(29.2)	20(5.4)		370(100)

<표 16>에서는 점복에 대한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한다’가 2.2%에 그치고,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한다’가 56.5%로 절반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 한다’가 23명으로 6.2%,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 한다’가 129명으로 34.9%를 차지했다. 합치면 40.1%가 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무리 천주교회에서 점복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새겨 두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점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물었을 때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녀가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1.9%인 7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57.8%인 214명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약 60% 정도가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7%인 100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고, 13%에 해당하는 48명은 ‘정말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해서 40%가 궁합을 보아야 한다거나 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사주는 절반 이상이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궁합은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는 아주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것은 사주를 보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궁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사주를 보고 팔자를, 즉 운명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결혼할 때 궁합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또는 이웃이 궁합을 보기 위해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며, 때문에 궁합을 전통적인 관습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어린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이사할 때 택일을 하거나, 부모의 무덤 자리를 잡을 때, 그리고 집안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 이내로 2%를 넘지 않는 반면,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1%에서 12%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도 19%에서 29%까지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20% 이상이 작명, 택일, 풍수지리 등에서는 점복에 의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작명하는 역술인에게 맡겨서 지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정말 그렇다’가 34명으로 9.2%, ‘대체로 그렇다’가 100명으로 27%를 차지하여 36.2%가 작명을 하기 위해 역술인을 찾아가갈 가능성이 높았다. 천주교인이 되면 영세를 받을 때 옛 성인의 이름을 딴 세례명을 부여받는다. 이 이름이야말로 천주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작명은 다른 점복행위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름을 짓는 것을 인간사의 가장 중대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 세례명보다 세속 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 묘를 쓸 때 풍수지리에 맞게 명당을 골라서 써야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5명으로 12.2%,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 한다’는 응답이 95명으로 22.7%를 차지하여 합하면 140명으로 37.9%라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작명보다도 오히려 긍정하는 비중이 좀 더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

들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윗세대가 해왔던 관습적인 유형의 행위, 즉 작명, 택일, 묘 자리 고르기 등을 할 때는 전통에 그대로 의지하는 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천주교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불행을 막고 복된 삶의 추구를 얻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천주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양 종교인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태도를 지니며 살아간다. 때문에 운명론적 사고는 상당 부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면서도, 전통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작명, 택일, 풍수지리설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즉 점복에 의지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변량분석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이제 여러 배경변인에 따른 점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제주 천주교인의 특징적인 면을 좀 더 확인해 보려한다. 여기서는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과 천주교인이 된 후 점복경험 그리고 점복유형의 인식으로 3개의 지수화작업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신앙적 특성, 교회생활에 따른 독립변수와 점복행위의 종속변수를 상관 관계시켜 그 안에 점복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작업에 사용되는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t-검증과 F-검증에서 N: 표본 수, M: 평균, SD: 표준 편차, p: 유의도, scheffé 검증: 사후검증으로 집단간의 차이, A,B,C,D,E,F,G: 각 표에 나타난 조사항목을 나타낸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점복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심리적 특성상 종교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회적인 힘이 약하여 그만큼 더 점복신앙에 의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인다.

<표 17> 성별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성별	N(명)	M(%)	SD(%)	t	p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남자	152	1.26	0.82	0.301	0.763
	여자	218	1.23	0.79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남자	152	1.16	0.53	-1.076	0.283
	여자	218	1.22	0.52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남자	152	1.	0.82	-1.116	0.265
	여자	218	1.23	0.79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p값이 0.05를 기준으로 그 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이 연령 간 차이를 나타낸다고 본다. 결과를 보면 천주교인이 되기 전이나 천주교인이 된 후에 점복경험, 점복 유형에 대한 천주교인의 인식의 문제는 각각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scheffé의 검증결과,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에서 30대, 50대, 60대 이상이 20대보다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삶의 경험이 쌓여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 책임이 커지지 때문에 불안 심리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60세까지도 지속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조금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가정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분산되면서 그만큼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scheffé 검증은 오히려 20대의 젊은이들이 50대, 60대 이상보다 점복경험은 적을지 모르지만 점복에 대한 인식에서 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이들이 심리적 불안 요인과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인터넷이나 마스크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쉽게 점복에 대한 접촉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18> 연령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연령	20대	74	0.90(0.84)	4.714***	A < B, D, E
		30대	69	1.35(0.77)		
		40대	96	1.25(0.74)		
		50대	74	1.37(0.78)		
		60대이상	57	1.35(0.78)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연령	20대	74	1.35(0.48)	2.91*	
		30대	69	1.13(0.59)		
		40대	96	1.23(0.54)		
		50대	74	1.11(0.45)		
		60대이상	57	1.10(0.56)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연령	20대	74	1.62(0.54)	5.782***	A > D, F
		30대	69	1.41(0.54)		
		40대	96	1.41(0.49)		
		50대	74	1.27(0.44)		
		60대이상	57	1.27(0.42)		
		전체	370	1.40(0.50)		

*** : $p < 0.001$, * : $p < 0.05$

결혼 상태에 따른 점복차이는 t-검증으로 <표 19>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결혼 상태에 따라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된 후, 그 점복에 대한 인식에서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미혼보다 기혼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훨씬 많

고, 어려움과 상처, 가정 안에서 겪는 일들이 많아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점복을 많이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9> 결혼 상태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결혼 상태		N(명)	M(%)	SD(%)	t	p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기혼	281	1.32	0.77	3.568	0.000
	미혼	89	0.98	0.82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기혼	281	1.16	0.53	-2.370	0.018
	미혼	89	1.31	0.51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기혼	281	1.35	0.47	-3.591	0.000
	미혼	89	1.58	0.55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점복차이 검증

직업에 따라 점복신앙에 차이가 있는지를 F-검정한 결과, 특히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 점복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지만 직업을 가진 이들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천주교인이 된 후 그리고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변화가 점점 심해지는 사회 속에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안과 공포, 그리고 희망의 강한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차이는 사실상 별로 크지 않으며, 누구든지 점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은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태도라든가, 매스컴의 영향 등 다른 요인을 더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표 20> 직업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복		F	scheffé
		N(명)	M(SD) (%)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직업	학생	27	0.77(0.78)	2.459**
		사무직	34	1.13(0.81)	
		공무원	17	1.43(0.71)	
		자영업	57	1.49(0.71)	
		전문직	57	1.07(0.74)	
		교사	27	1.37(0.93)	
		기능직	22	1.21(1.04)	
		판매/서비스직	89	1.23(0.71)	
		전업주부	26	1.32(0.76)	
		무직	10	1.71(1.08)	
		기타	4	2.28(0.48)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 난 후 점복경험	직업	학생	
사무직	34			1.22(0.56)	
공무원	17			1.17(0.36)	
자영업	57			1.06(0.54)	
전문직	57			1.18(0.44)	
교사	27			1.17(0.67)	
기능직	22			1.34(0.68)	
판매/서비스직	89			1.19(0.56)	
전업주부	26			1.20(0.26)	
무직	10			1.09(0.65)	
기타	4			1.36(0.58)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직업			학생	27
		사무직	34	1.47(0.51)	
		공무원	17	1.55(0.49)	
		자영업	57	1.35(0.47)	
		전문직	57	1.33(0.54)	
		교사	27	1.40(0.54)	
		기능직	22	1.43(0.55)	
		판매/서비스직	89	1.36(0.47)	
		전업주부	26	1.42(0.43)	
		무직	10	1.34(0.71)	
		기타	4	1.14(0.20)	
		전체	370	1.40(0.50)	

** : p<0.01

월 소득수준에 따른 점복신앙의 차이의 F-검증 결과 역시,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되고 난 후 그리고 점복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제

주 천주교인들이 월 소득에 따른 점복행위의 정도는 별로 영향력이 없음을 보인다.

<표 21> 월 소득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월 소득	50만원이하	41	0.98(0.65)	1.891
	50만원 - 100만원	64	1.30(0.92)		
	101만원 - 200만원	118	1.31(0.82)		
	201만원 - 300만원	53	1.34(0.65)		
	301만원 - 400만원	25	1.28(0.72)		
	401만원이상	21	0.86(0.77)		
	무응답	48	1.25(0.84)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월 소득	50만원이하	41	1.22(0.43)	0.988
	50만원 - 100만원	64	1.31(0.58)		
	101만원 - 200만원	118	1.17(0.52)		
	201만원 - 300만원	53	1.09(0.47)		
	301만원 - 400만원	25	1.17(0.66)		
	401만원이상	21	1.25(0.50)		
	무응답	48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월 소득	50만원이하	41	1.50(0.51)	0.882
	50만원 - 100만원	64	1.47(0.56)		
	101만원 - 200만원	118	1.38(0.51)		
	201만원 - 300만원	53	1.37(0.43)		
	301만원 - 400만원	25	1.30(0.48)		
	401만원이상	21	1.29(0.52)		
	무응답	48	1.42(0.48)		
	전체	370	1.40(0.50)		

또 학력에 따른 F-검증결과 보면,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에서 학력에 따른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지만 학력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다양한 집단의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동체 신앙에 접근하기 쉬운 반면, 저학력일수록 환경이나 열등감으로 인해 공동체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점복신앙에 접촉이 쉽지 않을까 본다. 학력이 높은 신자일수록 종교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점복신앙을 미신적이고 비합리적 것으로 생각하여 거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도 대단히 높은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교육 등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이 점복신앙과 많이 관련된 것이라 짐작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미 천주교 신자가 된 상태에서는 천주교 신자라는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표 22> 학력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20대	36	1.36(0.84)	2.655*
	30대	159	1.32(0.77)	
	40대	161	1.11(0.81)	
	50대	14	1.49(0.72)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20대	74	1.19(0.49)	3.957**
	30대	69	1.09(0.57)	
	40대	96	1.29(0.49)	
	50대	74	1.29(0.41)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20대	74	1.34(0.48)	0.565
	30대	69	1.38(0.49)	
	40대	96	1.43(0.52)	
	50대	74	1.47(0.46)	
	전체	370	1.40(0.50)	

** : p<0.01, * : p<0.05

3) 신앙적 특성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18) 같은 책, 66.

신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도 볼 수 있는데, 우선 교회소속에 따른 t-검증의 점복 차이는 <표 2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천주교인이 되기 전이나 되고난 후,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각각 청년과 일반 평신도 간에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반 평신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손쉽게 점복을 접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점복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여 아무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표 23> 교회소속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교회 소속		N(명)	M(%)	SD(%)	t	p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청년	73	0.89	0.79	-4.370	0.000
	일반 평신도	296	1.33	0.77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청년	73	1.31	0.51	2.050	0.041
	일반 평신도	296	1.17	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청년	73	1.56	0.55	2.902	0.005
	일반 평신도	296	1.36	0.49		

<표 24>에서 보면, F-검증으로 다음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 경험과 점복유형의 인식에서 각각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된 후에 점복경험에서는 무응답자보다 사회복지 임원이 점복행위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점복유형의 인식에서는 사회복지임원이 다른 교회 임원 즉 신심단체장과 간부, 교리교사, 구역반장, 그 외에 직분 없음과 무응답자들보다 점복행위가 높게 나타난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봉사의 직분을 하는 사람은 직분이 없는 이보다 점복의 접촉이 낮을 것이다.

<표 24> 교회직분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신심단체장 및 간부	88	1.16(0.63)	1.592	
	사목회 회장단 및 간부	33	1.25(0.79)		
	교리교사	43	1.00(0.84)		
	교회직분 구역반장	23	1.25(0.67)		
	사회복지임원	3	2.00(0.48)		
	직분없음	173	1.31(0.87)		
	무응답	7	1.46(0.93)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신심단체장 및 간부	88	1.08(0.45)	2.425*	G<E
	사목회 회장단 및 간부	33	1.15(0.50)		
	교리교사	43	1.21(0.35)		
	교회직분 구역반장	23	1.07(0.58)		
	사회복지임원	3	1.67(0.22)		
	직분없음	173	1.25(0.58)		
	무응답	7	0.87(0.65)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신심단체장 및 간부	88	1.31(0.43)	6.127***	G,B,D,A,C,F<E
	사목회 회장단 및 간부	33	1.15(0.25)		
	교리교사	43	1.43(0.48)		
	교회직분 구역반장	23	1.29(0.47)		
	사회복지임원	3	2.43(0.38)		
	직분없음	173	1.50(0.54)		
	무응답	7	1.08(0.53)		
	전체	370	1.40(0.50)		

*** : p<0.001, * : p<0.05

그런데 t-검증결과,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되고난 후 점복 경험에서 각각 95%의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모태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태신앙이 아닌 이들보다 점복에 접촉이 큰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모태신앙 자체가 외형적으로 교회의 출석이 빈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지 그것만으로 신앙이 깊다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출석만이 아닌 얼마나 성실한 신앙을 살아가는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5> 모태신앙 여부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모태신앙 여부		N(명)	M(%)	SD(%)	t	p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예	88	0.48	0.81	-10.619	0.000
	아니오	278	1.48	0.62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예	88	1.39	0.57	3.843	0.000
	아니오	278	1.14	0.50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예	88	1.45	0.52	0.974	0.331
	아니오	278	1.39	0.50		

여기에서 F-검증결과,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scheffé 검증에서 출석년수가 2년이하, 2년-5년, 5년-10년 보다 20년이상인 것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2년이하, 10년 - 20년, 20년 이상 보다 2년 - 5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이 신앙이 깊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교회출석이 오래될수록 신앙인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출석이 오래될수록 출석년수가 적은 이들보다 점복

의 접촉이 낮을 것이다.

<표 26> 출석년수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출석년수	2년 이하	35	1.58(0.54)	18.144***	E<A,C,B
		2년 - 5년	30	1.76(0.55)		
		5년 - 10년	44	1.66(0.62)		
		10년 - 20년	79	1.38(0.64)		
		20년이상	181	0.93(0.84)		
		전체	369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출석년수	2년 이하	35	1.13(0.45)	1.059	
		2년 - 5년	30	1.07(0.53)		
		5년 - 10년	44	1.22(0.55)		
		10년 - 20년	79	1.16(0.53)		
		20년이상	181	1.24(0.53)		
		전체	369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출석년수	2년 이하	35	1.40(0.57)	4.275***	E,D,A<B
		2년 - 5년	30	1.71(0.45)		
		5년 - 10년	44	1.50(0.49)		
		10년 - 20년	79	1.38(0.50)		
		20년이상	181	1.34(0.48)		
		전체	369	1.40(0.50)		

*** : p<0.001

제주 천주교인들이 미사참석에 따른 결과를 F-검정한 결과,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미사참여에 따른 점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scheffé 검증으로 2년이하가 10년 - 20년 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점복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즉 매주 참석하는 이가 월 1회 혹은 특별할 때 참석하는 이들의 점복의 점측이 낮다고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것은 미사시간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신앙의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미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활의 성찰과 새로운 다짐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위로와 미사에서 말씀과 성찬의 힘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주 참석하는 이들이 점복에 대한 참여가 낮을 것이다.

<표 27> 미사참여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매주참석	285	1.19(0.76)	2.005	
	거의참석	64	1.34(0.81)		
	월 1회 정도	11	1.68(1.10)		
	특별한 때만	9	1.46(1.21)		
	전체	369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2년 이하	285	1.18(0.51)	2.324	
	2년 - 5년	64	1.19(0.58)		
	5년 - 10년	11	1.18(0.71)		
	10년 - 20년	9	1.65(0.49)		
	전체	369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2년 이하	285	1.35(0.45)	5.333***	A<D
	2년 - 5년	64	1.53(0.54)		
	5년 - 10년	11	1.56(0.92)		
	10년 - 20년	9	1.85(0.69)		
	전체	369	1.40(0.50)		

*** : p<0.001

그리고 성경읽기에서는 횟수나 충실정도에 따라 F-검증결과,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성경 읽기에 따른 점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scheffé 검증으로 날마다, 일주일에 2회~3회가 거의 읽지 않음 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점복의 접촉이 차이가 있다. 생각날 때와 거의 읽지 않는 이들이 날마다 읽는 이들보다 점복신앙이 높았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方便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할수록 높은 윤리적 삶과 보다 더 참 행복의 삶의 기준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함으로써 천주교인이 위기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보다 날마다 읽는 이가 상대적으로 점복의 접촉이 낮게 나타난다.

<표 28> 성경읽기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날마다	38	1.30(0.92)	0.813	
	일주일에 2~3회	79	1.35(0.79)		
	생각날때 가끔	171	1.20(0.75)		
	거의 읽지 않음	82	1.20(0.84)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날마다	38	1.13(0.54)	2.028	
	일주일에 2~3회	79	1.13(0.52)		
	생각날때 가끔	171	1.18(0.53)		
	거의 읽지 않음	82	1.31(0.52)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날마다	38	1.30(0.38)	8.234***	B,A<D
	일주일에 2~3회	79	1.25(0.40)		
	생각날때 가끔	171	1.39(0.51)		
	거의 읽지 않음	82	1.61(0.55)		
	전체	370	1.40(0.50)		

*** : p<0.001

4) 교회생활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단체가입 유무에 따른 점복 신앙의 F-검증결과,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 경험과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각각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scheffé 검증으로 단체 가입이 4개, 5개를 가진 이가 단체가입을 하지 않는 이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단체가

입이 없는 경우보다 단체가입을 한 천주교인이 점복경험의 비율이 낮게 보인다. 이는 단체의 가입을 통해 자신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본다. 단체 활동이 신앙의 토대를 기우는 장소가 됨은 물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된다. 단체 활동은 신앙의 기쁨을 맞보고 체험함으로써 일상사의 문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한다. 따라서 단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는 단체 활동을 하는 이보다 점복 신앙이 높게 나타났다.

단체가입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함께 구성원간의 결속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나타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단체 가입한 이가 단체가입이 없는 이들보다 활발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점복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신앙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

<표 29> 단체가입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F	scheffé	
		N(명)	M(SD) (%)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단체가입	없다	72	1.24(0.88)	0.458	
		1개	94	1.27(0.84)		
		2개	107	1.19(0.78)		
		3개	65	1.33(0.66)		
		4개	22	1.08(0.79)		
		5개	10	1.23(0.88)		
	전체	370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단체가입	없다	72	1.38(0.56)	3.895**	
		1개	94	1.28(0.56)		
		2개	107	1.13(0.51)		
		3개	65	1.07(0.46)		
		4개	22	1.07(0.45)		
		5개	10	0.99(0.31)		
	전체	370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단체가입	없다	72	1.64(0.56)	6.154***	F,E<A
		1개	94	1.43(0.53)		
		2개	107	1.36(0.48)		
		3개	65	1.27(0.41)		
		4개	22	1.19(0.29)		
		5개	10	1.11(0.37)		
	전체	370	1.40(0.50)			

*** : $p < 0.001$, ** : $p < 0.01$

세례경우, F-검증결과에 따라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 경험과 되고 난 후 점복 경험에서 각각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도 나타났다. 여기에서 scheffé 검증으로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 경험에서 성인 세례와 세례 받지 않음 보다 유아 세례가 적게 나타났다. 예비자 교리를 받는 이들은 세례 받은 이들에 비해 점복신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례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입문이고 이를 통해 신앙의 가르침을 숙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한 교육과 준비가 끝나면 예식을 거행하고 그 안에서 새로이 서약과 함께 신앙의 이름을 가진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교인은 하느님의 존재와 그의 보호하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이보다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짐작된다.¹⁹⁾

<표 30> 세례에 따른 점복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점 복			
		N(명)	M(SD) (%)	F	scheffé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	유아세례	89	0.46(0.71)	46.527***	A<D,E
	예비자	10	1.26(0.76)		
	세례 청소년기에 세례	75	1.22(0.67)		
	성인세례	193	1.60(0.61)		
	세례받지않음	2	1.83(1.02)		
	전체	369	1.24(0.80)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	유아세례	89	1.40(0.51)	5.326***	
	예비자	10	1.31(0.28)		
	세례 청소년기에 세례	75	1.16(0.51)		
	성인세례	193	1.10(0.54)		
	세례받지않음	2	1.51(0.54)		
	전체	369	1.20(0.53)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	유아세례	89	1.40(0.45)	1.767	
	예비자	10	1.69(0.59)		
	세례 청소년기에 세례	75	1.32(0.51)		
	성인세례	193	1.42(0.51)		
	세례받지않음	2	1.86(1.21)		
	전체	369	1.40(0.50)		

*** : p<0.001

19) 송경의, '점보러 가는 사람들의 정신 심리학적 분석', 「빛과 소금」 11(서울: 누리원, 1995), 74.

V. 종합 해석

이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 행위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주지역 천주교인들 중에서 점복 행위를 경험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도,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에도 전혀 점복 경험이 없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경우가 64.9%를 차지한다. 그리고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는 점복 행위의 경험이 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는 점복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을 합치면 80.4%가 천주교 신자로서 점복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반면에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13%를, 그리고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에 경험한 사람이 6.6%를 차지해서 합치면 19.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천주교 신자로 있으면서 여전히 점복행위에 참여하고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주교인이 되는 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점복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교리와 신앙생활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점복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비교적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점집을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주, 관상, 수상을 보는 것처럼 적극적인 경우도 10%대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열 명 중에 한 명 꼴로 사주, 관상, 수상 등을 통해 점괘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점복 행위에 이어서 귀신을 불러들여 곶을 하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민간신앙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경우도 상당

수가 있는데, 이들은 5%대로, 점집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곳을 하거나 부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실제 경험한 신자들은 물론 경험하지 않았던 신자들 사이에서도 점복 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는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주의 결과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는 매우 적었지만, 점괘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달할 정도였다. 이것은 당장 점을 치러 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점복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개인적인 운세를 알고 싶어 점을 치는 경우보다도 작명, 택일, 조상 묘자리 선택을 위한 풍수지리 등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관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윗세대가 해왔던 관습적인 유형의 행위, 즉 작명, 택일, 묘 자리 고르기 등을 할 때는 전통에 그대로 의지하는 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천주교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운명론적 사고를 부정하면서도, 전통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작명, 택일,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천주교 신앙과 점복을 상호 모순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양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하자면 신자 내면에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작명, 택일, 풍수지리 등을 점복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즉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단순한 전통적 관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변량분석을 이용하여 제주 천주교인의 일반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신앙적 특성, 교회생활에 따른 점복의 상관관계를 통해 점복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천주교인의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된 후, 그리고 그의 점복유형의 인식을 지수화하여 3개의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바탕으로 t-검증, F-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점복행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서는 성별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지닌 독특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점복행위에 접근하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연령, 결혼 상태에 따른 점복정도의 차이가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된 후 그리고 그 외 점복유형의 인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은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에서 30대, 50대, 60대 이상이 20대보다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삶의 경험이 쌓여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불안의 심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경험에서 30대, 50대, 60대 이상이 20대보다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삶의 경험이 쌓여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불안의 심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상태는 여기에서 결혼 상태에 따라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된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본다. 혼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이 미혼인 경우보다 훨씬 여러 어려움과 상처, 가정 안에서 겪는 일들이 많아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점복을 많이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특성인 직업, 월 소득, 학력에 따라 점복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월 소득은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되고 난 후 그리고 점복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95% 신뢰수준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제주 천주교인들이 월 소득에 따른 점복행위의 정도는 별로 영향력이 없음을 보인다. 학력 역시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경험에서 학력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앙적 특성에서 교회소속, 교회직분, 모태신앙 여부, 출석년수, 미사참여, 성경읽기, 기도정도에 따라 점복의 경험과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회소속은 천주교인이 되기 전이나 되고난 후,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각각 청년과 일반 평신도 간에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반 평신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손쉽게 점복을 접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점복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여 아무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교회직분은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 점복 경험과 점복유형의 인식에서 각각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천주교인이 된 후에 점복경험에서는 무응답자보다 사회복지 임원이 점복행위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점복유형의 인식에서는 사회복지임원이 다른 교회내 임원 즉 신심단체장과 간부, 교리교사, 구역반장, 그 외 직분 없음과 무응답자들보다 점복행위가 높게 나타난다.

모태신앙 여부는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되고난 후 점복 경험에서 각각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모태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태신앙이 아닌 이들보다 점복에 접촉이 큰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모태신앙 자체가 외형적으로 교회의 출석이 빈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지 그것만으로 신앙이 깊다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출석만이 아닌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출석년수는 천주교인이 되기 전과 점복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였다는 것이 신앙이 깊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교회출석이 오래될수록 신앙인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출석이 오래될수록 출석년수가 적은 이들보다 점복의 접촉이 낮을 것이다.

제주 천주교인들이 미사참석에 따른 결과는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학적인 미사참여에 따른 점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매주 참석하는 이가 월 1회 혹은 특별할 때 참석하는 이들의 점복의 접촉이 낮다. 한편 성경읽기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보다 날마다 읽는 이가 상대적으로 점복의 접촉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매일 기도하는 이들이 특별히 기도하거나 거의 기도하지 않는 이들보다 점복의 접촉이 낮게 나타났다.

단체가입은 천주교인이 되고 난 후 점복 경험과 점복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단체가입이 없는 경우보다 단체가입을 한 천주교인이 점복경험의 비율이 낮게 보인다. 이는 단체의 가입을 통해 자신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본다.

세례의 경우, 천주교인이 되기 전 점복 경험에서 성인 세례와 세례 받지 않음보다 유아 세례가 적게 나타났다. 예비자 교리를 받는 이들은 세례받은 이들에 비해 점복신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례를 받은 교인은 하느님의 존재와 그

의 보호하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이보다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짐작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제주 천주교인들도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신앙적 특성과 교회생활에 따라 점복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천주교인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점복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과 천주교인이 되고 난 후에 점복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주지역 천주교인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것은 제주지역 천주교회가 천주교인들에게 점복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르침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전히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복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약 5% 정도는 점복행위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무당에게 굿을 해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하며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실제 점을 치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궁합, 풍수 등 다양한 점복행위를 오래된 전통적 관습의 일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점복행위를 신앙, 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천주교 신앙에 상관없이 당연히 따라야 할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오래된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무조건 금지하고 죄악시하기보다는, 천주교회의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고 점복을 보다 폭넓은 한국 전통 문화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에 전래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는 제사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통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확대하면서 제사에 대한 허용이 공식 입장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꾼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천주교 신앙의 한국 풍토에의 토착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제사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가장 대표적인 토론 주제였다면, 이제는 점복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VI. 요약 및 결론

종교가 인간의 정신이나 태도,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작용한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믿음과 의식과 실행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도 그 사회의 역사 및 전통과 분리되어 질 수 없다.²⁰⁾

흔히들 점을 미신으로 일축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앞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복행위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어쩌면 인간이 살고 있는 한 계속될지도 모른다. 아니 합리적 실증적 과학사고의 발달과 정비례하여 이 행위는 더욱 번창할 지도 모른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은 점복집이 생겨나고 있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조차도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복의 내용도 그 유형을 분류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제주 지역에서 유독 급증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동을 겪으며,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다른 조직체로 대체되기 시작한 70-80년대 시점도 아니고,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점복 영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경제불황이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존의 합리화 사회에 대한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던 시기에 모든 사회문화현상의 기저에는 '합리화'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고, 비합리적인 것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 중에 하나도 점복 신앙이었다. 따라서 70-80년대의 산업화 시기에는 점복신앙이 그리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시기에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전통문화를 대변하는 위치에 오름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갖고 왔지만, 최근 점복신앙의 급증 요인으로

20) 노치준, '한국 기독교와 기복신앙', 『전통과 현대』 6(서울: 전통과 현대사, 1998), 135.

는 부족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합리화’에 대한 불신 및 반성은 점복신앙이 급속히 진전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개신교의 신도수 증감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점집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앞서보았듯이 제주지역이 점복신앙을 행하기 쉬운 몇 가지 편리성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그러한 편리성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강신무들로 하여금 제주지역에 들어와 이곳을 교두보 삼아 산업사회에 맞는 체제로의 시험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점, 또한 제주지역이 갖는 종교적 상징성 등, 몇 가지 요인이 함께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새로 나타나 성장하는 점집은 철저히 시장상황에 발맞추어 움직이는 모습을 생산하고 있다.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해 곳 비용을 치르기도 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상담을 시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품처럼 점복의 종목에 따라 요금을 받고, 신문광고를 적절히 활용하며, 고객이 원하면 곳의 절차도 과감히 변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철저히 시장상황에 편입되는 시험적 단계의 모습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사찰을 짓고, 신도조직을 관리하는 등 체제 종교의 모습을 띠어가기도 한다.

이는 전통적인 점복신앙의 구조가 재편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의 대변자로 자리하던 전통적인 점복신앙은 현대 산업사회의 공동체에 적합한 새로운 구조로 재편성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그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²¹⁾

본 연구는 제주지역 천주교인을 대상으로 점복행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천주교인의 점복행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며, 이러한 점복행위를 유지시키는 이중적 태도의 사회적 요인을 밝혀보는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제주지역의 천주교인들이 점복행위에 대해 대부분 배격적인 입장이지만 일부는 여전히 왜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물어보게 된다. 교회는 점복을 일률적으로 미신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나 점복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들의 점복행위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관습으로 받아들이고 있

21) 조성윤 외, 앞의 책, 65-66.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인식의 측면에서는 그 결과가 경험적인 면 보다 폭이 넓다고 여겨진다. 특히 풍수지리와 작명, 궁합 등은 점복행위로 파악하기 보다는 단순히 전통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점복행위에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대가 발전하는 가운데 사회의 변화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불안 요인들을 겪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인터넷이나 마스크,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점복행위에 접근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특성과 교회생활에 따라 점복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열중하면서 점복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현실 이해관계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점복신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 여전히 제주인의 정서 깊은 곳에서 점복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증언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점복신앙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현실로 인정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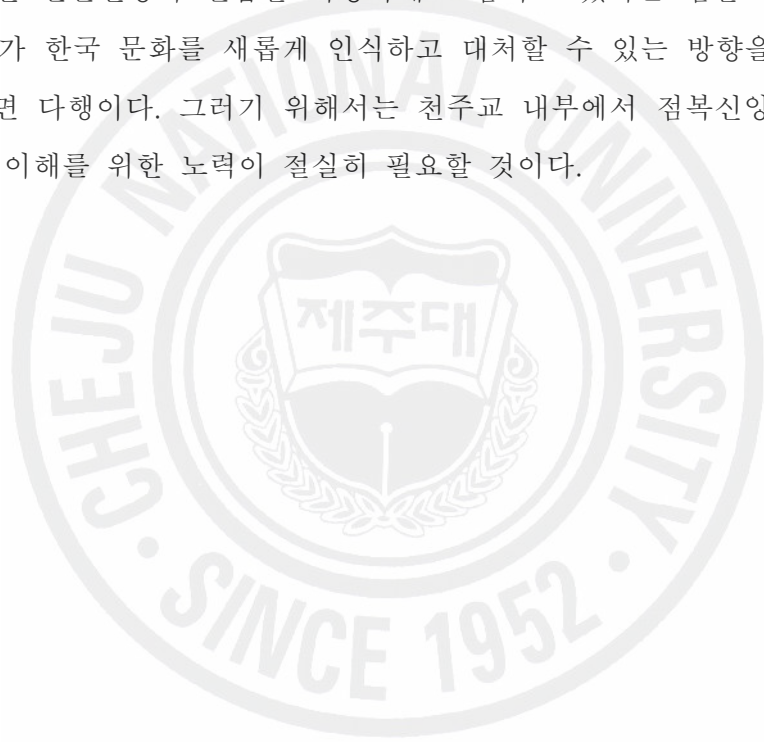
그동안 천주교가 처음에는 무속신앙, 점복에 대해 철저히 배격하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비록 태도가 유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상제사 등이 전통관습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본격적인 다른 논의는 없었다. 이제 한국의 전통관습을 이해하고 어떤 점복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점복행위는 올바른 분별을 통해 사회의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처음에 논문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허락을 받아 30차레이상 점집에 직접 다녀 오기도 했다. 가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고민들, 그 과정에서 아무리 논문조사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가 아닌 서울 중심지(신촌, 미아리, 종로)의 점집, 철학관, 사주카페 등을 둘러본 경험이 오늘날 점복신앙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이자 논문을 쓰고자한 토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생활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상처, 아픔들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가

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의 연구가 제주 천주교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한국 사회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작업은 제주 천주교인의 점복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과 인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 점집을 방문했던 결과와 역술인과 무당, 그리고 점을 치러가는 신자들을 심층면접 하였던 결과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다만 점복에 대해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관습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천주교가 한국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주교 내부에서 점복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I. 단행본.

- 강정환, “점복의 현대적 위상 및 기능과 논리구조”, 「민속학술자료총서」, 3호,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4.
-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제주: 태화출판사, 1980.
- 김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2.
- 김광일, 「한국 전통문화의 정신분석」, 서울: 교문사, 1991.
-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서울: 문음사, 1995.
- 김 권, “道佛의 占星思想과 占卜信仰”,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1」,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 김승혜·김성례, 「그리스도교와 무교」, 서울: 바오로딸, 1998.
-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86.
- 김종대,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 서울: 민속원, 1999.
- 김중순, “토정비결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3」,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4.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한국무속총서 제4권, 서울: 집문당, 1981.
- 김태곤, “한국문화속의 민간신앙”, 「한국문화속의 종교」, 서울: 성신여대 출판부, 1987.
- 김태곤, 「한국 민간신앙 연구」, 서울: 집문당, 1983.
- 김태곤, 「한국의 무교」, 한국종교, 이리: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973.
- 김태곤, 「한국의 占卜」, 서울: 民俗苑. 1983.
- 김태곤, “한국신당연구”, 「국어국문학」, 29, 서울: 국어국문학회, 1965.
- 김홍철, “韓國 占卜信仰에 관한 研究”,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2」,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

막스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8.

박일영, “종교간의 갈등과 대화”, 「종교신학연구2」, 서울: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89.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 출판사, 2003.

상기숙,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2」,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88.

이복규, 「조선전기 사대부가의 점복과 독경」,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1」,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이부영, “부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웅진출판사, 1991.

이부영,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이원규, 「종교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2005.

에밀 뒤르케임,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역, 서울: 민영사, 1992

장장식, “占卜信仰의 慣行과 그 영향”,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1」,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장장식, “점복자와 점복의 종류”,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1」,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도서출판 빅벨, 2001.

차옥송, 「무교-한국인의 종교경험」, 서울: 서광사, 1997.

최길성, “민간신앙”,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8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최영진, “元型利貞, 점과 철학의 이중성”,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2」,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최운식, “점복신앙의 의미와 원리”, 민속학술자료총서 「무속 역술 2」,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2003.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Eliade.M, 「聖과 俗-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83.

Goldthrope John and Gordon Marshall, 1992, " The promising future of class analysis", Sociology 26: pp. 382- 400.

II. 논문

강창일, “1901년 제주도민 항쟁에 관하여”, 「제주도사 연구」, 1, 제주: 제주도사연구회, 1991.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의 원인”, 「신라대학교 논문집」, 9호, 부산: 신라대학교, 1980.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6호,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김명석,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기독교적 갱신을 통한 선교전략”,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6

김영동, “샤머니즘과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학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집, 한국기독교학회여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김유순,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토착화 현상과 순전성에 관한 고찰”, 「성서논구」, 제3집, 서울: 한국성서신학교 선교문제연구소, 1995.

박성규, “민속신앙과 한국기독교 토착화의 상관관계”,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 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1.

박찬호, “한국교회의 민간신앙에 대한 인식분석 및 목회적 대안”, 「성결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신상범, “한국 개신교에 끼친 한국 재래종교의 영향”, 「서울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문」, 1982.

원용국, “韓國民間信仰의 神觀에 對한 宣敎學的 研究”,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2.

윤원철, “한국민간신앙에서의 금기:그 구성 요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석사학위논문」, 1981.

이우찬, “한국 기독교에 공존하는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대한 고찰”, 「경남전문대학교」 논문집 23집, 1995

이종함, “한국재래종교의 기복사상이 교회에 끼친 영향”, 「서울신학대학석사학위논문」, 1986.

장영희, “무속의 가신신앙에 나타난 심령적 연구”, 「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정인구, “한국 기독교의 무속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 석사학위논문」, 1994.

조성윤,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 「신종교 연구」,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3.

조성윤, “제주지역 민간신앙과 점복”, 「제주지역 주민의 의식과 사회상」, 제주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02.

좌영복, “민속신앙의 기독교와의 관계 -선교학적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지영택,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전주대학교 논문집」 18호, 1990.

Ⅲ. 정기간행물

P.들루즈, “민간신앙을 대하는 사목자의 태도”, 「사목」, 161호,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2.

김성수, “점과 뉴 에이지 운동?”, 「빛과 소금」 11, 서울: 누리원, 1995.

김준수, “성경은 점을 지지하는가?”, 「빛과 소금」 11, 서울: 누리원, 1995.

김정숙, “한국문헌 신화에 보이는 신의 모습”, 「사목」 154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노윤식, “혼합적 민중 기독교인들의 이중헌신에 대한 선교 신학적 고찰”, 「선교

- 신학」 제2호, 87호.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1997.
- 노치준, “한국 기독교와 기복신앙”, 「전통과 현대」 6권, 서울: 전통과 현대사, 1998.
- 민병소, “한국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이해”, 「풀빛목회」 제31권, 서울: 풀빛목회편집부, 1984.
- 서광선, “한국무속과 기독교”, 「풀빛목회」 제10권, 서울: 풀빛목회편집부, 1982.
- 송경의, “점보러 가는 사람들의 정신 심리학적 분석”, 「빛과 소금」 11, 서울: 누리원, 1995.
- 정영식, “무속신앙의 신학적 접근”, 「풀빛목회」 제16권, 서울: 풀빛목회편집부, 1984.
- 박일영, “한국 무속의 신관”, 「사목」 149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 박일영, “가톨릭과 무교의 상호선교”, 「신학전망」, 115,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4.
- 박일영, “그리스도교에서 본 무속신앙”, 「종교신학연구」, 7집, 왜관: 분도출판사, 1994.
- 박일영, “무속과 그리스도의 교류: 회교와 전망”, 「종교연구」, 8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2.
- 박일영, “원시 종교의 생명관 - 한국 무속과의 비교연구”, 「신학과 사상」, 7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1992.
- 박일영, “종교간의 갈등과 대화 -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종교신학연구」, 2집,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방상근, “한말 천주교와 제주교안 - 발생 배경을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17,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 서광선, “한국의 무속과 기독교”, 「풀빛목회」 제31권, 서울: 풀빛목회출판부, 1984.
- 이부영,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한국인의 종교심리론”, 「사목」 56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 이순성, “한국 무속과 교중미사의 상징행위에 대한 비교이해”, 「신학전망」, 115,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6.
- 이원규, “점문화가 끼치는 사회적 해독”, 「빛과 소금」 11, 서울: 누리원, 1995.

- 장장식, “점복신앙의 관행과 그 영향”, 「비교민속학」, 제12집, 서울: 민속학회, 1995.
- 장장식, “점복자와 점복의 종류”, 「한국민속학보」, 제10집, 서울: 민속학회, 1999.
- 정영식, “무속신앙의 신학적 접근”, 「풀빛목회」 제10권, 서울: 풀빛목회편집부, 1982.
- 정재식, “종교사회학자가 본 한국교회”,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 세미나 강의집, 1982.
- 정창영, “샤머니즘과 한사상”, 「풀빛목회」 제31권, 서울: 풀빛목회편집부, 1984.
- 정철범, “한국인의 심성과 기독교 영성”, 「목회와 신학」, 50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3.
- 정희수, “점, 미혹의 얼굴”, 「빛과 소금」 11, 서울: 누리원, 1995.
- 정희수, “민속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신학적 과제”, 「기독교 사상」, 442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조흥윤, “무(巫)가 그리스도교에 끼친 영향”, 「한국그리스도사상」 제5집,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출판부, 1997.
- 조흥윤, “무(巫) 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교”, 「종교신학연구」 제6집, 왜관: 분도출판사, 1993.
- 한완상, “한국교회는 무당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독교 사상」, 216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제주 천주교인의 점복에 대한 인식 진단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 천주교인 만20세 이상의 점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1.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각 질문의 도입부에 나오는 안내문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모든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십시오.
2. 모든 답변은 비밀을 보장해 드리오니,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응답지에 개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3.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응답지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목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4.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응답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묻는 질문들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조사자 : 문창우 (전화 : 016-698-6124)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만 ()세

3. 당신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당신은 결혼을 하셨습니까?(미혼인 경우 6번으로)

- ① 예 ② 아니오

5.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 ① 자녀 있음 ()남 ()녀 ② 자녀 없음

6.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사무직(금융, 보험업) ③ 공무원(일반행정업)
④ 자영업(사업, 서비스업, 제조, 건설업,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⑤ 전문직 ⑥ 교사(공립, 사립 모두포함)
⑦ 기능직(농업, 어업, 광업, 수렵채취업, 전기, 가스, 수도업)

④ 무속신앙: 토속신앙()

⑤ 없었음 : ()

21.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간략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 스스로에 의해서, 타인(친척, 부모, 친구, 선배 등)의 권유로,
집안의 제사문제로 인하여)

<< 점복에 대한 인식과 경험 >>

22. 당신은 천주교인이 되기 전 다음 점복신앙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테신앙인 경우 23번으로)

점복종류 \ 응답내용	① 전혀없다	② 거의없다	③ 가끔해보았다	④ 자주해보았다
(1) 사주팔자				
(2) 관상				
(3) 수상(손금)				
(4) 작명				
(5) 궁합				
(6) 풍수지리				
(7) 굿				
(8) 부적				
(9) 오늘의 운세				

26. 아래의 설문내용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V표시로 응답 하여 주십시오.

설문내용 \ 응답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④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1) 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녀의 이름은 점명가나 역술가에게 맡겨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역술인이나 점쟁이 말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이사할 때 점쟁이나 역술가에게 택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조상의 묘를 쓸 때 풍수지리에 맞게 명당을 골라서 써야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7) 금기사항이나 속설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7. 당신은 사주팔자, 관상, 수상, 작명, 궁합, 풍수지리, 금기, 굿, 부적 등을 하고 나서 갈등이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② 별로 느끼지 않았다
③ 약간 느꼈다 ④ 아주 많이 느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

문 창 우 (사회학과)

점복은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오래되었으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일반대중에게 오랫동안 ‘미신’이라 치부되면서도 널리 퍼져 있는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천주교인을 대상으로 점복행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천주교인의 점복행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며, 이러한 점복행위를 유지시키는 이중적 태도의 사회적 요인을 밝혀보는 것이다.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 행위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주지역 천주교인들 중에서 점복 행위를 경험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도,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에도 전혀 점복 경험이 없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경우가 64.9%를 차지한다. 이들은 천주교 신자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점복 행위에 참여하고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는 점복 행위의 경험이 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는 점복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을 합치면 80.4%가 천주교 신자로서 점복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반면에 천주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13%를, 그리고 천주교인이 되고난 후에 경험한 사람이 6.6%를 차지해서 합치면 19.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이 되는 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점복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교리와 신앙생활 사이에 일정한 간

격이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점복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비교적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점집을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주, 관상, 수상을 보는 것처럼 적극적인 경우도 10%대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열 명 중에 한 명 꼴로 사주, 관상, 수상 등을 통해 점괘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점복 행위에 이어서 귀신을 불러들여 굿을 하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민간신앙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은 5%대로, 점집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굿을 하거나 부적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실제 경험한 신자들은 물론 경험하지 않았던 신자들 사이에서도 점복 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는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주의 결과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는 매우 적었지만, 점괘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달할 정도였다. 이것은 당장 점을 치러 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점복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개인적인 운세를 알고 싶어 점을 치는 경우보다도 작명, 택일, 조상 묘자리 선택을 위한 풍수지리 등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관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윗세대가 해왔던 관습적인 유형의 행위, 즉 작명, 택일, 묘 자리 고르기 등을 할 때는 전통에 그대로 의지하는 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천주교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운명론적 사고를 부정하면서도, 전통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작명, 택일,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천주교 신앙과 점복을 상호 모순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양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하자면 신자 내면에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작명, 택일, 풍수지리 등을 점복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즉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생각했다기보

다는, 단순한 전통적 관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변량분석을 이용하여 제주 천주교인의 일반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신앙적 특성, 교회생활에 따른 점복의 상관관계를 통해 점복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점복행위에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대가 발전하는 가운데 사회의 변화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불안 요인들을 겪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인터넷이나 마스크,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점복행위에 접근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특성과 교회생활에 따라 점복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열중하면서 점복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현실 이해관계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점복신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 여전히 제주인의 정서 깊은 곳에서 점복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증언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이 점복신앙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현실로 인정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점복에 대해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관습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천주교가 한국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주교 내부에서 점복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